

# 우범기 전주시장 파격행정 '본격화'

### 시, 효자4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주차공간 3배 이상 대폭 확대... 2025년 6월 개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선인 시절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하게 질타했던 관내 한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이 파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선 8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 시장이 시민들과 직결된 대민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신축 주민센터의 부족한 시설과 협소한 주차장 계획 등에 제동을 걸었던 효자4동 건립사업은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 효자4동의 증가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신축 예정인 효자4동 주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목적강당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 늘어날 기능과 수요에 부합하게 기존 30대로 계획했던 주차공간도 100대 규모로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과 복지 중심의 주민센터를 주민 생활 거점인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것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이에 따라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는 기존 158억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부지를 비롯해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 운영이 중단된 중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효자동 서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승화원·봉안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약 190억원으로 증가하며, 부지면적은 9988㎡에서 1만2896㎡로 규모가 커졌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계획 주차대수도 기존 30대에서 100대 규모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날 중 신축 변경계획에 대한 방침과 세부계획을 결정한 후 전북도 투자심사 재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 재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4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 6월 복합커뮤니티를 개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부지를 비롯해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 운영이 중단된 중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효자동 서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승화원·봉안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운

영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기존 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안을 들여다보고, 향후 추진될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와 서학에 술마을 예술광장 조성사업 현장, 완산 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지, '예술공간, 완산번개 1973' 조성지 등 시장 주요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연일 시장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우 시장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공예명인관, 국제관광안내소 부지, 전주영화제작소, 전주에너지센터, 화산 선별진료소,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을 찾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결에서 일상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주민센터의 필요성 등이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 공동체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거점공간인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자4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8년 인구 과밀화로 인해 효자4·5동이 분동된 이후 그동안 임시 청사에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재훈 기자

## '팔복동 빈집' 활기 넘치는 곳으로

### 전주시-MBC-글로벌우서울, 마을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

전주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내 방치된 빈집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매장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MBC, 주식회사 글로벌우서울과 한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매장들을 동시에 만드는 '빈집살래 시즌 3 마을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in 전주' (이하 빈집살래 in 전주)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추진 중인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에 MBC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접목해 침체된 이 일대를 활기 넘치는 곳으로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빈집살래 in 전주'는 MBC의 세 번째 빈집재생 프로젝트다.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구역 내에 방치된 빈집 5곳이 공간제작 전문가 기업인 (주)글로벌우서울과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매력적인 매장으로 탈바꿈된다.

시와 MBC는 코로나로 경제 위기

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 입점자 4명을 선정해 입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와 MBC는 지난 상반기부터 자만마을, 완산동, 팔복동을 현장 답사한 후 팔복동 신복마을을 빈집살래 in 전주' 활성지로 선정했다.

'빈집살래 in 전주'는 이달부터 약 7개월 동안 활영에 돌입해 빈집이 특색있는 상가로 변모하고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까지 담아 내는 상반기 방영될 예정이다.

MBC 빈집살래 시즌1은 서울에서 빈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이야기 담았으며, 시즌2에서는 통영에서 빈집으로 귀이·귀촌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과정을 담았다.

(주)글로벌우서울은 서울 익선동과 대전 소재를 거리를 기획한 바 있어 팔복동의 넓은 빈집이 상생협력 상가로 어떻게 변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특목'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선분리대 설치나 미끄럼 방지 포장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벌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도로교통공단,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뤄진 13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과 개선 후 1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64.4%와 100%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암동 사대부고 사거리와 덕진동 동물원입구 삼거리 등 조사 대상지 13

개소의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9건에서 96건으로 감소했다.

연간 평균 3.3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개선사업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명주골네거리의 경우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총 31곳을 대상으로 차선분리대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고원식 교차로 설치, 차로 증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사업을 벌였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전북은행-전북현대모터스FC, 전주맛배달 이벤트 '맞손'

### JB카드 사용자 할인쿠폰·전북현대 홈경기 입장권 등 지급

전주시와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 FC(주)가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와 전북은행은 4일 박형배 부시장과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맛배달과 전북은행 카드(이하 JB카드)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와 전북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맛배달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부터 '전주맛도 배달 Easy' 이벤트를 추진하고, 매일 JB카드 사용자 1004명에게 전주맛배달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체크카드 사용자 10명을

추첨해 전주사랑상품권 포인트 5만 점을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전북현대모터스 FC(주)와 함께 전주맛배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2 시즌 전북현대 홈경기 입장권을 홍보하고, 매 경기당 예매권 20매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현대 홈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 때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할인 쿠폰(5만 원 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돕고 대형 민간 배달업체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전주맛배달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현재 누적 매출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향후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4일 전주맛배달과 전북은행 카드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박형배 부시장)

해 참여기업 및 프랜차이즈 협력 이벤트를 추가 발굴하고, 하반기 가맹점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5~7일 특별 전시·생태체험 '풍성'

전주자연생태관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별 전시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장수풍뎠이 타잔경기와 꽃무지 애벌레 시합 등 다양한 곤충 체험프로그램 △곤충 디오라마 및 표본액자, 수

서곤충 전시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 △가족 영화상영 등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애완곤충 키트를 통해 다양한 곤충의 습성을 관찰하고,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도 체험할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전주천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